

자꾸 왜 그러느냐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 몇의 형상(形象)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주안점은 오로지 그들의 형상입니다. 그들 존재의 배경과 이력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 등은 본문 내용에 비추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다루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보기로 합니다.

켄타우로스(Centauros)는 수인(獸人)입니다. 일족(一族)은 익시온(Ixion)과 여신 헤라(Hera)의 모습을 한 구름과의 사이에서 낳았다고도 하고, 또는 그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페리온산(Perion Mt.)에서 암말과 교접하여 낳았다고도 하여 대체로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이고 하반신은 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하반신 말의 부분은 태양에 속하는 남성적인 힘을 나타내며, 이 힘을 다스리는 정신이 상반신을 이루는 사람의 부분에 있다고 합니다.

북풍(北風)의 신으로서 보레아스(Boreas)는 거친 북풍을 의인화한 신으로서 흔히 턱수염을 기르고 날개가 달린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였던 오레이티아(Orithyia)를 납치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고야 맙니다.

사티로스(Satyros)는 반인반수(半人半獸)의 정령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농경의 신으로서 몸과 팔과 얼굴이 인간이며, 하반신은 염소인 괴물로 등장합니다. 곧 상반신만이 인간이며, 하반신은 산양의 다리로 형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머리에는 2개의 뿔과 뿔죽한 귀를 달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여자를 좋아하여 현재 ‘Satyric’[호색(好色)]이라는 형용사에 이름의 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프리아포스(Priapus)는 번식과 다산(多産)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유난히 큰 성기(性器)를 지닌 기형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실체는 번식의 상징인 팔루스[남근(男根), Phallus]입니다. 프리아포스는 지금의 터키 다르다넬스(Dardanelles) 해협 지역을 중심으로 숭배되었는데, 이 풍습이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유입되어 밭작물이나 가축을 지켜 번식과 풍요를 돌보는 신으로 변모되었습니다.

헤르마프로디토스(Hermaphroditos)는 남녀 양성을 모두 갖춘 존재입니다. 이름은 헤르메스(Hermes)의 어근 ‘Herm’과 아프로디테(Aphrodite)의 어근 ‘Aphrodit’에서 유래합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전설은 헤르마프로디토스를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소년으로 미화하여 이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카리아(Caria)의 살마키스(Salmakis) 샘에 사는 요정이 그에게 반하여 헤르마프로디토스와 영원히 결합하게 해달라고 신들에게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받은 남성이고 받은 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피톤(Python)은 거대한 구렁이입니다. 땅의 여신 가이아(Gaia)의 아들입니다. 크기가 누우면 산자락 하나를 덮을 만큼 엄청난 크기였다고 하며, 때로는 용(Dragon)의 형상이 되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암컷 피티아(Pythia)를 거느리고 살면서 가이아의 신탁(神託)을 전하는 일도

수행하였습니다. 성질이 포악하여 샘물을 마시러 오는 사람과 짐승을 함부로 잡아먹다가 어느 한 때 신탁소를 세울 장소를 찾아 헤매던 아폴론(Apollon)의 활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필자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들의 이름과 이력을 설명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들 세계[世系, 참고로 여기서 세계는 대대로 내려오는 계통(족보)을 말합니다]의 근원과 종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을 무엇 때문에 대홍수로써 멸절(滅絶)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부터 따져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는 최초 인류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의 의문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기록에 비추어 대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셨던 사람의 본성과 행실은 이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창 06:05-07)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 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창 06:11-13)

결국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貫盈)했던 것과 온 땅과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패괴(敗壞)하고 강포(強暴)하였던 것이 멸절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물(대홍수)로써의 멸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관영한 죄와 패괴하고 강포하였던 행위의 실체는 무엇이 있을까요? 필자는 욕신을 입은 사람의 음란(淫亂, Lechery)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홍수 이전에 구약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창 06:01-03)

이 같은 음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로 인간의 수명을 단축하시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음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물결처럼 널리 퍼져만 갔습니다. 대홍수로 쓸어 버리셨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곳곳하게 버터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이 같은 음란이 횡행하고 널리 관영된 곳이 다름 아닌 소돔(Sodom)과 고모라(Gomorrah)였습니다. 그곳에서의 음란의 실상이 이러하였습니다.

창세기 기록에 따르면, 사람으로 변한 천사 둘이 아브라함(Abraham)의 조카 롯(Lot)의 집에 거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를 본 소돔 사람들은 그

두 사람(천사)을 롯에게 끌어내게 하여 그들의 몸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요구는 다름 아닌 동성애(同性愛, Homosexuality)를 만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롯은 당시 가나안(Canaan)의 습속(習俗)에 따라 천사를 대신하여 자신의 딸을 소돔사람들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사람들의 행패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돔사람들은 롯의 집에 거하고 있었던 외지사람으로서 천사 둘을 그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집요하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그곳에는 이 같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짐승과의 수간(獸姦)을 포함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음란이 거침없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무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 내 형제들이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창 19:04-13)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이 널리 관영한 죄의 실체로서 그곳 소돔사람들의 음란과 행악을 아시고 유황불을 그곳에 비같이 내리셔서 소돔성

뿐만 아니라 성에 딸린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엮어 멸하시게 됩니다. 신약에서의 기록이 이를 명명백백히 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향과 불을 비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엮어 멸하셨더라”(창 19:24-25)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유 01:07)

그렇다면 다시금 생각해 보기에, ‘음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음란의 사전적 의미는 ‘음탕하고 난잡함’을 말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생령(生靈, Living Soul)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한낱 육신의 정욕을 앞세워 본질을 망각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곧 음란은 하나님 사랑으로 창조된 사람이 그 사랑을 왜곡하여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죄의 본체로서 육신을 입은 사람을 사람의 정욕으로 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창조된 사람의 사랑은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것인 반면에, 사람의 육신에 관계한 사람의 정욕에 기한 음란은 더러운 죄 자체임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의 기록에 비추어, 하나님의 생기(生氣, Breath of Life)에 힘입어 생령으로 창조된 사람의 음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힌 일이지만 본래 이것이 우리 사람이었습니다. ‘관영한 죄의 주체’로서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골육지친(骨肉之親)은 물론이고, 어미의 하체(下體), 계모의 하체, 자매의 하체, 타인의 아내 등을 포함하여(레 18:06-20), 동성의 교접은 물론(레 18:22), 심지어 짐승과의 수간(獸姦) 또한 서슴지 않았습니다(출 22:19, 레 18:23, 레 20:15-16, 신 27:21).

생각해 보기에 왜 이 같은 규례가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기록에서 이를 명백히 금하고 있음은 실제 사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고 들은 것은 물론이고 실제의 경험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음란이 아마도 이와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 신화에서 보았던 인물들의 근원과 형상은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말 그대로 가상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실체적 산물이자 구체적인 형상 자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조상은 사람이 되는 셈이며, 구약성경의 기록에 비추어 그들의 세계와 함께 시조(始祖)로서 사람의 말로는 오직 죽음뿐입니다. 음란을 경계하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 13:04)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벧후 03:07)

“...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롬 01:18-25)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05:28)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롬 01:27)

그렇다면 창세기를 통해 볼 때, 인간이 물과 불로써 멸절된 이유는 다름 아닌 ‘음란’이 원인이었던 셈이 됩니다. ‘정결하게 하는 샘’(264장)에서 씻을 일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비롯된 그리고 비롯될 음란의 원죄를 말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스갯소리일지는 몰라도 세간에서 흔히 이야기하기를 아무리해도 설득이 되질 않는 3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곧 선생님, 목사님, 스님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해도 설득이 되질 않는다”는 세간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일말의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전적으로 부정할 수 있을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필자가 선생이다 보니 그런지는 몰라도 스스로가 이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필자가 세간의 이야기를 끝이끝대로 수용하고 또한 납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필자가 여기서 한 가지 되짚어 두고자 하는 사실은 설득과 관련하여 우리 목회자에게 “자꾸 왜 그러십니까?”하는 말을 내비춰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에서 여기서 목회자의 차이점을 다른 부류, 곧 신부님과 스님을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위 3사람은 성직자라고 하는 공통점이 눈에 띕니다. 그렇지만 심심풀이 땅콩 식의 생각으로 차이점을 대별하면, 모름지기 목사님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해진 유니폼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는 있어도 무척 자유스럽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양복에, 때로는 예복에, 제각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목사님이 교회 밖을 나설 때면 그 즉시 익명성에 가려져 특별히 마주해서 이런 저런 대화가 없다면 이 분이 목사님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부님의 수단(Soutane)과 스님의 가사(袈裟)는 어느 때고 반드시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과는 달리 이런저런 대화가 없어도 우리는 금방 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 기혼자(既婚者)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부님과 스님은 기본적인 자격이 무엇보다도 이 세상과 속세로부터 완전히 인연을 끊어야함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만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필자가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의 것입니다. 곧 목사님은 기혼자라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필자는 감각이 무뎌 듣고 보는 것이 어리숙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은 그간에 신부님이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을 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처승[帶妻僧, 화택승(火宅僧)]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혹시 스님들이 같은 처지에 몰려 물의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필자는 목사님이 되레 이 같은 물의 때문에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곧잘 들어보았어도, 신부님이나 스님들이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는 그다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들먹이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 또한 차이점으로 보아 네 번째의 것으로 취급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언뜻 보기에 미혼자인 신부님이나 스님들이 네 번째에 해당할 수 있는 개연성이 더 클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혼자인 목사님이 더 많은 것일까요? 참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화제를 덧붙여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처님(하느님)의 법(말씀)을 대언하는 스님(신부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부처님(하느님)의 거룩한 제자(종)로서 스님(신부님)’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또는 ‘양 무리[중생(衆生)]의 목자로서 신부님(스님)’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필자는 이러한 말은 좀체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목사님을 ‘거룩한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자’, ‘말씀의 선포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양 무리의 목자’ 등의 표현은 곧잘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다섯 번째의 차이점으로 손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목사님(설교), 신부님(강론), 스님(설법) 중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가장 시끄러운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할 수 있을라치면 이 또한 여섯 번째의 차이점으로 손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님, 신부님, 스님 중에서 누가 가장 바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누가 가장 분주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견상 드러나는 엄숙한 품위로 보아 안팎에서 누구의 입이 가장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똥맞으나마

세 분이서 달리기 시합을 한다면 누가 가장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할 수 있을라치면 이 또한 일곱 번째의 차이점으로 손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본장의 화제에 결부하여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이 글을 갈무리해 볼까
합니다. 어느 한 날 영험 있는 노(老)스님이 거하고 있었던 방장(方丈)에
깨달음에 목이 말라 있었던 한 제자가 한 수 가르침을 받고자 그것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노스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합장하
고 노스님 앞에 예를 다하여 잠자코 서있던 한 제자에게 노스님은 느닷없이
이처럼 처음 말문을 뗐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아무 것도 손에 들지 않고 노스님 앞에 그저 합장하고만 서있던 한
제자는 어안이 병병하여 뭔가 잘못 들었나싶게도 여겼지만 이내 저도
모르게 일상 그대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이후로 그들의 대화[화두(話頭)]는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습니

다. “그렇다면 바닥에 모두 내려 놓거라”

“노스님, 말씀드렸드시피 아무 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가지고 가거라”

이에 한 제자는 노스님의 말(화두) 속에 담긴 깊은 뜻을 되새겨 보아 비로소 큰 깨달음을 얻고 이후 존경받는 불교계의 큰 거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제자의 깨달음은 무엇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이들의 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신앙적 유익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무릇 음란(淫亂)과 피를 나눈 형제지간으로서 “탐욕(욕심)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보아 마땅하지 않을까요?

앞에서 하나 둘 꼽은 모든 것(이유, 원인, 모습 그리고 함축된 의미 등)은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악한 행사로 취급해도 별반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악한 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고자 하는 강박한 심사에서 비롯된 악한 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패악한 심사로부터 비롯된 악한 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잡이로서 목회자를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울곧게 담겨 있는 목회자를 지금까지 오만불손(傲慢不遜)하게 폄하한 필자의 편대가 조만간 하나도 남김없이 자취를 감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필자의 경거망동(輕舉妄動)한 심사 또한 조만간 하나도 남김없이 자취를 감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노스님의 말을 크리스천 된 우리의 신앙으로 치환하여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끌어 봅니다.

“자꾸 왜 그러느냐?”

“자꾸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꾸 그러지 말거라”

“하나님,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꾸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 세상 앞에 나가 보거라”